

저축은행 톱5, 3분기 누적순익 1551억... 업황 반등 신호탄

기준금리 인하로 회복 가속
상위 5곳 실적 8.9% 증가
지방권 업황 개선은 과제
PF 활성화·소매금융 기대

올 3분기 저축은행의 업황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부실채권(NPL)을 털어내면서 대손충당금을 줄인 영향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업황 회복 시기가 당겨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상위 저축은행 5곳(SBI·OK·웰컴·한국투자·애뉴온저축은행)의 누적순이익은 1551억원이다. 전년 동기(1424억원) 대비 8.9% 증가했다. 3분기 순이익은 9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늘었다. 상위권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업황이 회복되는 모양새다.

실적이 가장 많이 호전된 곳은 애뉴온저축은행이다. 9월까지 누적이익 30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누적순손실(-375억원)과 비교하면 만족할 성적표다. 3분기 순이익은 199억원이다. 지난 1분기를 시작으로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애뉴온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63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등 대열에 올라섰다는 평가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의 3분기 누적이익은 279억원이다. 전년 동기(114억



저축은행이 3분기 흑자를 기록하면서 깜짝 실적을 공개했다. 업황 회복 시기가 당겨질 것이란 관측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원) 대비 144.7% 증가했다. 3분기 순이익은 98.7% 증가한 165억원을 달성했다.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몸집을 줄이는 추세지만 공격적인 영업을 펼친 영향이다. 9월말 기준 한국투자저축의 총여신잔액은 7조1551억원으로 연간 1649억원 증가했다.

3분기는 업계 전반에 걸쳐 호실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전국 저축은행권의 합산 실적이 흑자로 전환하면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3분기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합산순이익은 258억원이다. 물론 상반기 실적과 합치면 여전히 누적손실 3636억원이다. 지난 1~2분기 389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영향이다.

적자가 여전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고무적이란 평가다. 당초 저축은행의 반

등 시기를 두고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직전 분기 대비 1.11%포인트(p) 상승했다. 부실채권 매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기업 여신잔액이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격점이란 평가다. 지난 9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총여신잔액은 97조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조원 줄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실 자산관리에 집중하고 영업을 축소하는 등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다했다”며 “업황 회복흐름이 포착됐지만 전반적인 영업개황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추가적인 건전성 확보가 요구되는 시기다”라고 말했다.

지방저축은행의 실적 반등이 요구된다. 아직 수도권·대형 저축은행을 중심

으로 업황 회복 흐름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방의 경우 지주계열저축은행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분기까지 BNK저축은행과 IBK저축은행의 누적순이익은 각각 42억원, 319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지켜야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영업 환경이 나쁜 탓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서는 지방 저축은행의 업황 회복을 두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다. 향후 추가 인하 조치가 있다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리테일(소매금융) 영업 여건도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업황 회복 과정에서 본격적인 ‘육성가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적을 통해 PF 사업을 무리하게 단행한 저축은행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부실한 사업성 평가와 무리한 후순위채 발행을 병행한 저축은행은 재기가 불가능할 수 있다 우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우세한 만큼 업황 반등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카드 News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한 황해수 KB국민카드 준법감시인 상우(오른쪽 첫번째)가 김병환 금융위원장(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자금세탁방지 우수 금융위원장 표창

KB국민카드가 자금세탁방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KB국민카드는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관한 이해와 인식 확산에 기여한 우수 기관을 선정해 수여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주관한다.

KB국민카드는 금융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관련 교육 ▲고위험 국가 고객확인 확인 ▲주거적 고객위험평가 수행 등 자금세탁방지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창권 KB국민카드 사장 취임 후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했다. 고객확인 의무 제도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잖은 공을 들였던 설명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낸 부분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라고 말했다.

신한카드 쏘트래블 체크카드 150만장 돌파 이벤트

신한카드가 오는 31일까지 신한 쏘트래블 체크카드 발급 150만장 돌파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추첨 대상은 쏘트래블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1회 이상 이용한 고객이다. 추첨을 통해 ▲리모와 캐리어 ▲에어팟 맥스 ▲고프로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미니언즈 여권케이스&네임택 등을 제공한다. 해외에서 1회 이상 이용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최대 150만 포인트를 증정한다.

같은 기간 응모와 관계없이, CU에서 판매하는 삼각김밥 15종을 15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신한 쏘트래블 체크카드’ 실물 결제 및 포켓CU앱 QR인증을 동시에 진행하면 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1일 “6개월 만에 100만장 누적 발급을 기록한 데 이어 11월 말 150만장을 돌파했다. ‘국내외 어디서든 365일 쓸 수 있는 카드’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

삼성물산 시공, 사우디 최초 도시철도 본격 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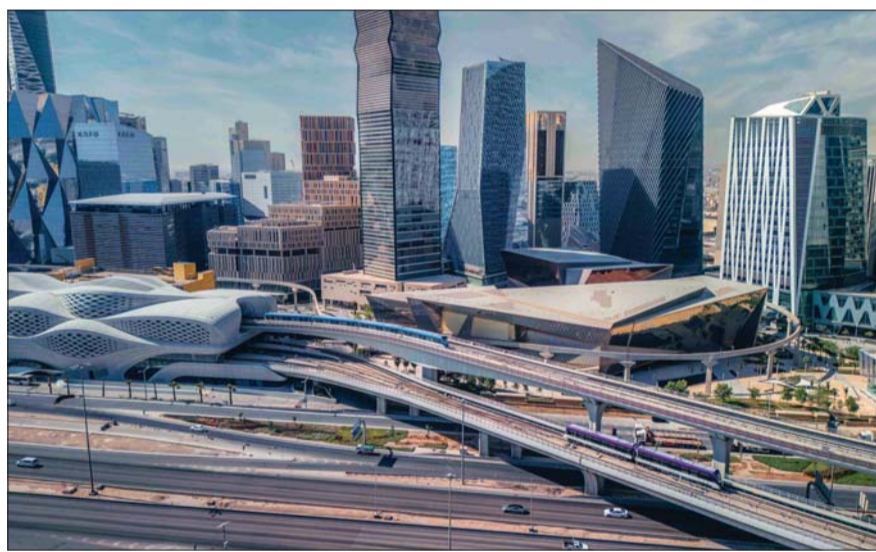
리아드 첫번째 대중교통 시설
6개 노선 중 3개 노선 정상운영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건설한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 메트로가 본격 개통돼 현지시간 1일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한다.

1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리아드 메트로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아드에 들어서는 첫번째 대중교통 시설이며, 1호선부터 6호선 총 176km 연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다.

6개 노선 중에서 1·4·6호선 3개 노선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운행된다. 2·5호선은 오는 15일, 내년 1월 5일에 3호선까지 단계적으로 운행이 개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6개 전체 노선에 대한 개통식이 진행됐다.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이 직접 리아드 메트로의



리아드 메트로 열차 운행 전경. /삼성물산

개통을 선언했다.

이번에 개통하는 리아드 메트로 노선 중 삼성물산은 스페인 건설사 FCC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4-5-6호선을 시공했다. 킹 칼리드 국제공항과

킹 압둘라 금융지구 등 리아드 핵심 지역을 가로지르는 이 노선들은 총 연장 70km에 달하며, 역사만 29개, 24km의 교량구간 등이 함께 건설됐다.

리아드 메트로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전 2030 달성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리아드 핵심 대중교통 시설로서 사우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켜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물산은 이번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과 동남아·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인프라·발전소와 같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영훈 삼성물산 리아드 메트로 부사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사우디 첫 도시철도 프로젝트를 직접 시공해 의미가 크다”며 “공사기간 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삼성물산이 보유한 높은 시공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리아드 메트로를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국민은행, 코어뱅킹 현대화 본격화

안정적 거래·디지털 혁신 실현
IBM과 메인프레임 계약 갱신

KB국민은행은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해 코어뱅킹 현대화를 본격화한다고 1일 밝혔다.

코어뱅킹은 은행 시스템 운영의 중심축으로 고객의 금융거래를 지원하며

대량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코어뱅킹 현대화를 위해 KB국민은행은 대량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기존 메인프레임 기반의 코어뱅킹1과, 신규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최적화된 코어뱅킹2로 이원화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KB국민은행은 안정

적인 금융거래와 디지털 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한다.

이원화 전략에 따라 메인프레임 기반 코어뱅킹1은 2030년까지 완전 전환한다. 코어뱅킹2는 타 업무와 연계성이 낮은 업무부터 시작해 비대면 금융 서비스 핵심 기능까지 클라우드로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화 과정에서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은 IBM과 2025년 7월 만료 예정

인 메인프레임 계약을 2030년까지 갱신한다. 2025년 상반기부터는 새로운 메인프레임 환경을 도입해 신기술 활용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의 급증과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코어뱅킹 현대화는 필수적”이라며 “안정적인 대고객 서비스와 디지털 혁신을 동시에 실현해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